



버자야-JDC 3500억 소송 '2라운드'

감정평가 공방... 약 3년만인 내달 20일 변론 재개 버자야 상대한 제주도 2억대 승소 판결 영향 관심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하 예래단지)을 둘러싸고 버자야 제자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벌이고 있는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이 2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

21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자야제자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일이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열린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해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 상에동 일대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은 진척되지 않았다. 버자야와 JDC가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철회, 감정료 등을 놓고 3년 가까이 공방만 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1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예래단지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지난달

18일에는 버자야 측 변호인이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년 7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지난달 18일 제주도가 버자야제자리조트를 상대로 승소한 2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과 위락, 약국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당시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예래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JDC의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JDC의 주도 하에 예래단지 개발 사업 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인가처분 및 수행처분을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버자야제자리조트는 이 소송에 대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송은범기자

무사증 도외이탈 브로커 일당 적발 해경, 1년 추적끝에 중국인 등 4명 검거

돈을 받고 중국인을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M(39)씨와 중국인 알선책 쉼모(30·여)씨, 모집책 황모(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중국인 모집책인 임모(27·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M씨와 쉼씨는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받은 뒤 제주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이동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고 도주했지만 제주해경은 1년간

의 수사 끝에 올해 4월 4일 제주시 연동동의 한 길거리에서 쉼씨를 검거했다. 이를 계기로 해경은 마씨와 황씨, 임씨도 차례로 체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제주에서 유출업소를 운영하던 M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우미 일을 하던 쉼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씨는 중국 SNS를 통해 중국인을 모집했고,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도우미 우모(27·여)씨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을 모집해 함께 제주에 입국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경에 검거되지 않은 우씨는 현재 추적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사증 밀입국과 관련해 총 41명을 검거했고, 올해는 4명을 검거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버자야측이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투자를 유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3500억대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한리일보 DB

"제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제주대학교 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공동파업에도 나섰다.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는 21일 제주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1차 공동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며 "6월까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노동 정책이었지만,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아직도 0%"라며 "지난 7월 돌입한 천막농성은 계속하고, 향후 2차 공동파업과 대정부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은범기자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정차 트럭 들이받아 숨져

21일 오전 6시25분쯤 제주시 도련1동 도련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김모(64)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던 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한달만에 581건

소화전·도로 모퉁이 5m 이내·횡단보도 위 등 적발

제주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달 만에 6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5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

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으로, 도민들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을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

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제주의 경우 22명으로 광주광역시(32명), 전북(23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 보험 가입대 수 1만명당 물적 피해의 경우도 제주는 52대로 광주(54대), 부산(53대)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은범기자

버스 들이받은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내 버스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낮 12시 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좌회전을 진행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시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B(62)씨 등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블록공장 허가 취소하라" 함덕리 주민들 기자회견

함덕콘크리트블록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덕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함덕리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제주시에 요구했다.

지난 14일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신청서류 검토 소홀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관련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 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절 >입지 제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검

토하지 않고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등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관계 부서 3곳에 대한 경고와 관계 공무원 12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반대대책위는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에 공장허가를 해주는 행정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함덕 벽돌공장의 원사업자가 현재 공장부지 건너편에 위치한 레미콘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며 "사업 및 공장 확장을 통해 추가 업종을 진행하는 업체를 중소기업 창업대상자로 평가한 것은 범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10회 아라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녹음이 절여가는 신록의 계절에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동문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못다 한 정을 나누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회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아라초등학교 제10회 총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5월 26일(일요일) 10시
- 장 소 : 아라초등학교 운동장
- 대 상 : 모교동문 및 가족
- 경기종목 : 축구, 비구니공놀이, 계주, 윷놀이 등
- 기 타 : 종목별 시상 및 경품추첨
- 팀 구 성 : 청팀(1, 5, 9, 13, 17회, 21회)
홍팀(2, 6, 10, 14, 18회, 22회)
백팀(3, 7, 11, 15, 19회, 23회)
황팀(4, 8, 12, 16, 20회, 24회)
- 연 락 처 : 회 장 전용직 010-3692-4389
수석부회장 오한진 011-692-5270
총무이사 전석민 010-9666-3297

아라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전용직

로얄쇼핑·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총회

■ 일 시 : 2019년 6월 9일(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장 소 : 제주 근로자 복지회관 대강당 (수목원 입구)

■ 보고사항

1. 감사 보고 (2018년도 감사)
2.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자료

■ 안 건

- 1호 의안 : 관리규약 일부 개정의 건
- 2호 의안 : 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3호 의안 : 관리비 절감 대책의 건
 - 1) 개별 냉·난방
 - 2) 주차 차단봉 설치 (주차층 배부)

■ 기 타

로얄쇼핑·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올스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리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 계층)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도,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임,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부전으로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류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